

해남, 청정전남 으뜸마을 2년연속 ‘최우수상’

삼산 금산마을 등 4개소 우수마을 선정



해남군이 최근 전라남도가 주관한 ‘2023년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업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시상금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남군은 2021년 우수상에 이어 2022년과 2023년,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마을가꾸기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신규 마을 51개소와 함께 2년차 으뜸마을 62개소, 3년차 으뜸마을 46개소까지 총 159개소가 으뜸마을에 참여했다.

꽃길 조성, 벽화 그리기, 환경 정화 활동 등 마을별 특색과 여건에 부합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내 마을은 내 손으로 가꾼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군은 종합 최우수상과 더불어 우수마을 평가에서도 관내 으뜸마을 4곳이 선정됐다.

삼산 금산마을, 옥정 청룡마을, 계곡 월산마을, 화원 신평마을은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내년도 사업비 200만 원을 추가 지급받게 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신안, 나눔리더 23명 단체 가입식 가저



신안군은 지난 23일 신안군민체육관에서 신안 나눔리더 1호 박우량 군수를 비롯한 23명이 나눔리더 단체 가입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리더 가입자는 ▲박우량 신안군수 ▲김혁성 신안군의회 의장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최미숙 의원 ▲신안군의회 권오연 의원 ▲김기만 의원 ▲안원준 의원 ▲이상주 의원 ▲박용찬 의원 ▲최춘옥 의원 ▲김용배 의원 ▲고인숙 의원 ▲이충만 신안군복지재단 이사장 ▲조성철 신안군체육회장 ▲안미영 신안군여성단체협의회장 ▲김정순 신안군여성자원봉사회장 ▲유역근 지역사회보장협의회장 ▲김웅기 자은운수 대표 ▲강행선 신안군정원수사회협력동조합 이사장 ▲이정심 팔금면여성단체협의회장 ▲최정남 꿈이 있는 집 원장 ▲최재형 신안어의동력 대표 ▲최연화 대연애드 대표 등 총 23명으로 신안 나눔리더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박우량 신안군수와 신안군의회 의원, 신안군 지역구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전원 나눔리더로 가입하는 모습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자들의 사회적 책임과 봉사 정신을 강조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됐다.

또한 11명의 신안군 관계·사회기관 단체장이 한마음 한뜻으로 나눔리더에 가입하여 따뜻한 지역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동참했다.

신안 나눔리더 1호로 가입한 박우량 신안군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해 준 23명의 나눔리더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나눔리더 가입식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나눔의 가치를 공유하고 실천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눔 리더는 나눔을 실천하는 개인 기부자 모임으로, 1년 안에 100만 원 이상을 기부하는 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신안군은 따뜻한 나눔을 선포해 줄 새로운 나눔 리더를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다.

/신안=강축복 기자

40년된 노후 영암정수장 개량·고도화 추진

영암군, 환경부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 선정

국비 65억 확보 총 131억 투입... 안심 수도물 공급 박차

영암군이 2024~2026년 국비 65억 포함 총 131억을 투입해 영암읍 일대에 수도물을 공급하는 영암정수장을 대대적으로 개량·고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루 2,600톤 규모의 수도물을 생산하는 영암정수장은, 1981년 준공된 완속 여과 방식의 노후시설이다.

지금까지 잦은 보수와 교체를 해왔고, 상수원인 대곡제의 수위가 낮아져 원수 수질이 나빠지면 대처가 어려워 고도화가 필요했다.

지난 40년의 누적된 불편을 개선



하기 위해 영암군은, 올해 4월 환경부 고도보조사업인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추진계획’에 영암정수장 개량

계획을 반영하게 만들었다.

영암군은 정비사업으로 영암정수장의 노후 설비와 완속 여과 시설을 고도정수 처리시설로 현대화한다.

고도정수 처리시설은 미세 입자와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원수 수질 변동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된 수량 확보와 처리 수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영암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을 생산·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영암군 수도사업소 관계자는 “2026년까지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시설 현대화, 수도물 생산 효율성 제고로 군민이 믿고 쓰는 양질의 수도물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두 기자

진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수상

‘진도대파, 로코노미로 농촌과 기업간 상생의 길을 찾다’ 우수 사례

진도군이 최근 부산 벡스코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9월 공모를 시작한 경진대회는 전문가 서류 심사(예선 1차), 온국민소통 온라인 국민투표, 발표 심사의 과정을 거쳐 우수한 사례를 선발했다.

예선 1차를 통과한 89건(지자체 61건, 공공기관 28건) 중 진도군은 ‘진도대파, 로코노미로 농촌과 기업간

상생의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했다.

진도군의 이번 수상은 기초지자체가 국무총리상(은상)을 수상하는 이례적인 성과로 군의 다양한 농수특산물, 관광, 문화 등에 대한 사회의 관심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진도군과 맥도날드의 적극적인 협업 사례는 로코노미의 모범사례로 호평받았다.

군은 진도대파 브랜드 이미지를 구

축하고 지역 농가의 경제 활력을 키웠으며 맥도날드는 지역 농가 상생과 가치소비에 기여했다.

진도군 농수산유통사업단 관계자는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협업을 더욱 확대해 군민이 행복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군정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진도=박재영 기자

목포시·신안군, 통합 효과분석 공동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관광객수 증가·경제적 파급효과 기대

내년 초 주민설명회 등 의견수렴 추진

목포시가 지난 23일 신안군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에 대해 목포시·신안군 통합추진(준비)위원, 시군의회 의원, 간부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통합사례분석, 주민의견 조사결과, 부분별 통합효과분석 등 성공적인 통합방안 마련 연구결과 발표와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및 여러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용역을 맡은 목포대학교 김병목 교수는 행정통합 효과로 행정편익이 4,585억원, 비용은 63억원으로 행정편익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고, 경제적 파급효과는 1조 2천억원으로 전망되었으며 관광객 수도 2027년도에 220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용역사에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무엇인지,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주민 설득 논리도 준비 되어 있어야 한

다고 주문했다.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 최태옥 위원장은 “후손에게 경쟁력있는 지역을 물려주기 위해 통합은 반드시 필요하며 지역민의 지혜를 모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목포통합추진준비위원회 주장배 위원장은 “신안목포 상생협력과제를 위해 시군 공동협력기구를 구성해 장기적 관점에서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신안 통합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중간보고회에서 제시된 각종 의견을 검토·보완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초 상생과제와 미래사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 주민 설득 논리도 준비 되어 있어야 한

/목포=김근호 기자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이용료 반값 이벤트 진행

국내 최초로 해수,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요법을 체험할 수 있는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지난 24일 완도군 신지면 신지명사십리 해변에서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완도해양치유센터는 전체 면적 7740㎡ 규모로 해수, 머드, 해조류 등 16개 치유 요법 시설을 갖췄다.

1층에는 해수풀과 명상풀 등 5개의 테라피실, 2층에는 건강 측정실을 포함해 머드·해조류 등을 활용한 11개 전문 테라피실이 들어섰다.

2층에는 해수 풀, 스킨 샤워, 저주파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등 건식·습식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건강 측정실에서 체형 분석과 피부 상태 측정 후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 받는다.

완도군은 해양치유센터 개관을 기념해 연말까지 해양치유센터를 비롯한 해양문화치유·기후치유 공공시설을 정상가보다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1, 2층 프로그램은 모두 현장 발권과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에서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하고 그 효과를 느껴보길 바란다”며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우리나라 해양치유산업의 거점 시설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해수·해조류·머드 등 16개 치유 테라피실 갖춘 해양치유센터



필라소풀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해조류 머드 랩핑

국내 최초 '완도해양치유센터' 개관



2023. 11. 24.(금)

전남 완도군 명사십리61번길 94